

# “선친 유지 받들어 덕 베푸는 삶 살고파”

●김용만광주 정원장학복지재단이사장

### 부친 故 김길수 승덕고 이사장 2000년 ‘장학회’ 설립... 장학금 수여 장애인·미혼모 시설 등도 지원... 나눔명문기업 가입 사회공헌 지속

“지역 인재 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정원장학복지재단(이사장 김용만·이하 재단)은 지역 인재 양성과 더불어 장애인, 노인, 미혼모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승덕고등학교 내 위치한 재단은 지난 2000년 김 이사장의 부친인 고(故) 김길수 초대 이사장이 ‘정원장학회’로 설립했으며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정신 아래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김용만(46·사진) 재단 제2대 이사장은 올해 기존의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소외계층을 발굴, 후원 범위를 확대해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5일 “항상 어려운 이웃을 지나치지 말고 덕을 베푸는 선친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사례 발굴과 다양한 나눔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14호’에 가입했으며, 앞서 지난해 12월엔 대한사회복지회 ‘아너스 클럽 16호’에, 지난해에는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48호(전국)’에 이름을 올렸다.

재단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9천300여만원의 장학사업과 약 6억6천800만원의 사회복지사업을 펼쳤다.

특히 김 이사장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때 직접 현장을 살핀 후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한다.

김 이사장은 “눈으로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후원할 때는 최소 3년을 기준으로 하



고 허투루 쓰임이 없게 꼼꼼히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07년부터 약 2천여명의 독거노인과 72곳의 장애인·미혼모·다문화 단체 등이 복지 혜택을 받았다.

/주성학기자

## 3월의 5·18민주유공자에 유신철페 외친 故 하태수씨



3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하태수씨가 선정됐다.

5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故 하태수씨는 1952년 12월21일 생으로, 전남대학교 재학 중 유신철편을 외치다 1년간 옥고를 치렀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연루돼 상무대에 연행·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교사로서 후진양성에 힘쓰다 2004년 사망했다.

5·18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故 하태수씨는 제묘역 5구역 34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앞으로도 열려있는 국립묘지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 국제와이즈멘 전남지구 아프리카에 책걸상 지원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전남지구가 재할용이 가능한 책걸상을 아프리카 케냐에 지원하는 등 활발한 국제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5일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전남지구에 따르면 최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동화 전남지구 총재, 김창준 전남지구 명예총재, 최인성 서해중지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할용이 가능한 책걸상 2천200개를 아프리카 케냐에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빈곤·사회적 문제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케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책걸상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협력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해외운송비 5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국내 운송에 들어가는 3천여만원의 비용은 김동화 전남지구 총재와 최인성 서해중지방장을 비롯한 5개 지방장이 부담한다.

김동화 총재·김창준 명예총재는 “전남지구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광주암행순찰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광주암행순찰대는 5일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펼쳤다.

윤시연 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횡단 보도와 후회전 운전 시일시정지 등을 각별하게 살피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성학기자

## 인사

### 동신대

▲전략실장 전진 ▲교무처장 양일승 ▲학생취업지원처장 겸 평생교육원장 안민주 ▲부속광주한방병원장 이영수 ▲전략부실장 주진걸 ▲학생취업부처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선상욱 ▲혁신지원실장 겸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김은정 ▲비교교육지원센터장 겸 대학공유협력센터장 최찬현 ▲국제교육원 부원장 겸 글로벌융합대학 국제학부장 박재민 ▲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장 김침이 ▲사회문화대학 교학과장 김용근 ▲산학협력부단장 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소장 강대홍

## 부음

▲박정욱씨 별세, 박효일(KIA 타이거즈 코치) 부친상=발인 7일(목) 오전 8시30분 대구 수성요양병원장례식장 특실 (053-766-4444)



## 희망을 나누는사람들, 6억 상당 생필품 전남도 기탁

전남도는 5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로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6억원 상당의 생활용품 기탁받았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지사, 김정안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강성희 전남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 품목은 주방세제, 샴푸, 바디워시, 비누 등 15종의 생활용품이다. 기탁받은 생활용품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대표법인으로서 힘든 시기마다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지역 발전에 애써주시는 감사한 마음”이라며 “한층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2007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위해 디딤씨앗장학금 지원, 후원 현물지원, 김장·연탄 나눔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양시원기자



## 전남교육청·中 총영사관, 국제교육교류 협력 강화

전남도교육청은 5일 “전남 청사에서 주(駐)광주 중국 총영사관의 꾸정지 총영사, 저우지화 부총영사, 황황 영사, 주이상 영사주재관 일행과 중국과의 우호관계 협력 증진 및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신임 꾸정지 총영사 일행이 도교육청을 예방해 이뤄졌으며, 교육청과 중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 유학생 유치 협조체계를 모색하는 대화의 자리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 산시성교육청과 지난 2019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양 기관의 2개 학교가 국제교류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오는 5월에는 중국 산시성교육청과 일본

사가현교육위원회 고등학생 22명을 초청해 한·중·일 동아시아 청소년 세계시민 캠프를 개최하고, 한·중 교사들이 함께 다양한 미래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하는 교육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꾸정지 총영사는 “도교육청과 중국 산시성교육청 간의 국제교육교류가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비자·체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크며, 글로벌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전남의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모두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등과의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자

##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황윤찬 전남대치과병원장 임명

전남대학교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제11대 병원장에 민정준 핵의학과 교수, 전남대치과병원 제8대 병원장에 황윤찬 치과보존과 교수를 임명했다. 또 전남대병원 김영민 사무국장은 연임됐다.

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행정동 2층 교수회의실에서 제63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전임보직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인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민정준 신임 화순전남대병원장은 1991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전남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화순전남대병원 개원과 함께 교수로 부임한 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핵의학과장과 진료지원실장, 의생명연구원장을 지냈으며 2021년 전남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2023년에는 연구부총장·산학협력단장을 역임했다.



황윤찬 신임 전남대치과병원장은 1998년 전남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후 전남대치과병원 교육연구부장·기획부장·진료부장을 역임했다.

김영민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은 화순전남대병원 사무국장,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직무대행·기획예산과장·원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2년부터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기수희기자

## 허동균 순천교육장, 새학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순천교육지원청은 5일 “전남 허동균 교육장이 신대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아침 등교맞이로 취임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순천경찰서, 순천시 자율방범연합대, 신대초등학교 학생자치회, 교직원 등이 참여해 어깨 피, 피켓, 현수막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펼치고 홍보 물품을 전달했다.

허동균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학교 분위기 조성



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 HDC현산, 돈보스코나눔의집 시설 개선비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광주 서구 세하동에 위치한 돈보스코나눔의집에서 시설 개보수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원 돈보스코나눔의집 시설장, 정한호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 현장소장, 백장준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인 돈보스코나눔의집은 아동·청소년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하는 곳으로 지붕 노후화와 외·내벽의 누수, 결로 등이 발생해 생활에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지원금액은 2천200만원으로 지붕 방수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쓰일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돈보스코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지원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 영광 백수파출소,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홍보

영광경찰서 백수파출소는 “최근 백수농협 임원진 및 조합원 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농번기철 대비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주민 보호와 도움이 필요할 때 정성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고 신뢰하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